

<겹겹이 쌓인 '非미술적 재료'...다미안 오르테가展>

장하나 기자

2014-04-10 14:01



Esquema del mundo: Estratigrafias, 2014, Polyurethane foam, bamboo, paper, cardboard, sisal, styrofoam, 110 x 110 x 110

콘크리트와 벽돌, 알루미늄, 고무, 골판지, 스티로폼 등이 여러 겹으로 뭉쳐져 커다란 구 형태를 이루고 있다. 일상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지만 미술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재료들이 한데 모인 셈이다.

이는 멕시코 출신 작가 다미안 오르테가(47)의 작품이다.

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비(非)미술적인 재료를 다루는 작가 다미안 오르테가의 국내 첫 개인전을 열고 있다. 전시에서는 10 여 점의 신작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.

초등학교 교사인 어머니와 대학 교내 극장의 배우였던 아버지 밑에서 "비교적 실험적이고 열린 교육을 받으며" 유년기를 보낸 작가는 특히 지질학에서 영감을 얻어 이번 작품을 만들었다고 한다.

"지각이 10 여 개의 거대한 판으로 구성돼 지각 위의 얼음덩어리와 같이 부유하고 있다는 지구 물리학 이론인 판 구조론을 연상시키는 형상"을 묘사한 작품들이다.

지구를 상징하는 듯 둥근 형상의 입체 작품은 다양한 재료를 한 겹씩 겹쳐서 제작했다. 작품의 잘려진 단면은 이처럼 수많은 재료가 겹겹이 쌓인 지층을 드러내며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.

이전에 폴크스바겐사의 뉴비틀 차량을 분해한 뒤 차량 부품을 도면처럼 천장에 매다는 작품을 선보여 화제가 됐던 작가는 이번에는 1 mm~5 cm 크기의 수많은 작은 돌맹이를 투명한 실에 매달아 구 모양으로 선보인다.

전시는 5 월 11 일까지. ☎ 02-735-8449.



URL: <http://www.yonhapnews.co.kr/culture/2014/04/04/0904000000AKR20140404177000005.HTML>

\